

# 창락 · 누상 어린이집

1994년 창신동에 연동창락어린이집 개원  
1999년 누상동에 연동누상어린이집 개원



연동창락가정관 - 1994



연동창락가정관 1주년 기념예배 - 1995



정흥진 구청장으로부터 누상어린이집 위탁패를 받는 이정기 관장 - 1999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원은 1994년 4월 17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창락가정관(대지 264평 · 연건평 86평)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종로구 창신2동 615-52번지에 위치, 주변의 열악한 낙산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 노인정 · 독서실이 들어선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1995년도 노인정 회원은 120명에 달한 적이 있었고 어린이집의 경우 1999년에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동년에 창신동을 공민화하기 위해 낙산아파트를 철거하게 되자 폐쇄하고 말았다.

1999년 3월 10일 종로구 누상동 54-1번지에 위치한 원불교재단의 누상어린이집을 또다시 종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동년 3월 31일 개원예배(김은교 원장)를 드렸다. 2004년 현재 원생수는 59명, 교직원 7명(유정례 원장)이다.



연동누상어린이집과 어린이들 - 2002



누상 어린이들의 봄소풍(삼성어린이박물관) - 2003



## 절제와 구제

### 연동교회의 명물 재활용실 / 매년 김장김치 담가 이웃에



재활용실(속 사진 : 1994년 4월 환경절제운동) - 2003

#### 연동재활용실

1994년 11월 27일 교육사회관 105호실에 재활용실(일명 환경절제실)을 차려 쓰레기로 사라질 물건들이 다시 우리들 손에, 아니면 노숙자나 농어촌 미자립교회 및 남미·아프리카 등지로 보내지고 있다. 교인들이 정성껏 내놓은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주중 2회(주일·수요일) 문을 열고 환경절제부원들의 수고로 한 가지당 5백원에 팔고 있다. 수익금은 모아져 노숙자 점심 식비(1998-2002)로 쓰여졌으며 2003년의 경우 강원도 명업교회(전용심 전도사)에 승용차 대금으로 지출했다.



김장배추를 절이는 회원들(속 사진 : 결핵촌에 김치를 전달하는 임원들) - 2003

#### 연동김치목장

1994년부터 한겨울에 우리 이웃이 먹을 김장김치를 목장위원회(옛 구역회)에서 담가 보내는 사랑의 손길, 매년 11월이면 100여명의 회원들이 지하주차장에 모여 김장을 한다. 2003년의 경우 인터넷으로 배추를 크릭해 흥성의 배추밭을 다녀오고 광천의 토굴까지 찾아가 새우젓을 사왔다. 1천개의 무와 1천2백포기의 배추를 썰고 절여 소를 넣어 포장한 뒤 총 213박스를 8년째 돕고 있는 서대문 결핵촌(150박스)을 위시해 장애인 기관 외 어려운 교인 및 연동원로관에 나누어 주었다.



# 주간 성경교실

## 크로스웨이·베델 등 성서연구 전성기 성경말씀으로 사는 평생교육 이수과정



크로스웨이성서연구반 - 1994



베델성서연구반 - 1995



주간성경교실연합수련회(광림수도원) - 1996



구약성서연구반 - 1997



화요성경공부수련회(강화수양관) - 1998



주간성경공부연합상기도회(새문안수양관) - 1999

1992년부터 교인들은 성경공부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2004년까지 운영된 주간성경교실(공부)은 무려 30여개 반에 달했다. 성경연구 및 성경공부가 붙여진 그 명칭은 '구약·권사·기초·베델·부부

·성경배경·성경탐구·소신지서·신약·인물별·일대일제자양육·요리문답·장로·전도학교·주제별·청년리더·TBC·투데이·평신도·큐티·크로스웨이·화요' 등이었다. 1995년 6월 18일의

경우 주제별성서연구반 19명, 베델성서연구반 24명, 크로스웨이성서연구반 56명이 수료했다. 그 중 주제별성서연구반은 1994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2시간씩 공부했다.



# 구역회

## 사랑의 기금과 김장 담가주기는 대표적 사업 2003년 구역을 목장, 교구를 초장으로 개명



남부지역 찬송가경연대회 - 1994



동부지역 야외예배(가평 광성교회 기도원) - 1996



사랑의 김장 담그기 - 1999



제1·2교구 야외예배(강화수양관) - 2000



제11·12교구 성경공부 종강 - 2000



제7·8교구 야외예배(서오능) - 2001

교인들의 가정을 주거단위로 묶어 구역회가 형성됐는데 자율적으로 교육·전도·친교·봉사를 담당한다. 1990년대에 구역별 성경공부 및 야외예배와 성경퀴즈

대회·찬송가경연대회·교구의 날 예배(주일 오후)를 가지며 매년 11월이면 김장을 담가 불우한 이웃에, 그리고 사랑의 기금후원회를 운영(별지 참조)하는 등 그 활

동이 광범위하다. 2003년 1월부터 구역을 목장, 교구를 초장, 구역장을 세움이, 부구역장을 지킴이, 권찰을 섬김이로 개명하고 돌봄이(심방 권사)를 신설했다.



# 항존직 교육

1994 특강 : '21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1998 표어 :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항존직 세미나 기념(소망교회 수양관) - 1994



항존직 영성훈련(강화수양관) - 1998

교회창립 100주년의 해인 1994년 9월 2~3일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소재 소망교회수양관에서 항존직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로장로로부터 피택권사에 이르기까지 77명이 참가했다.(사진: 상) 첫째날은 개회예배와 친교·기도회, 둘째날은 이성희 목사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특강과 이에 관한 분과별 토의가 있었다. 1998년 5월 15·16일에는 신축한 강화수양관에서 항존직 영성훈련을 개최했다. 표어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였으며 참가자는 교역자 9명, 장로 23명, 안수집사 27명, 권사 38명, 그리고 봉사자 10명이었다.(사진: 하)



# 교회창립 100주년

##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20여종 기념사업 및 행사 벌여



기념예배(사회: 이성희 목사)



한경직 목사의 축도



박동진 명창에게 게일문화상 시상

1994년은 교회창립 100주년의 해로서 교회표어를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로 정하고 사상 유래없는 다양한 기념 잔치를 벌였다. 3년전인 1991년부터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차근차근 시행한 주요행사 및 사업을 시간순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93. 5. 9. 장로회신학대학교에 학위논문실 설치 기금 1억여원 전달 ② 1994. 3. 7. 목회교육연구원 보조금 전달 ③ 4. 17. 연동창작가정관 개관 ④ 5. 22. 전교인운동회 ⑤ 9. 4-10. 30 연동미술인초대전 ⑥ 10. 2. 선교의 날 ⑦ 9. 25. 교육사회관(중축) 헌당 ⑧ 10. 6. 게일강좌 ⑨ 10. 10-12. 사경회 ⑩ 10.11-13. 지원교회 교역자초청위원회 ⑪ 10.21. 여전도회바자회 ⑫ 10.23. 기념예배 및 게일문화상(박동진 장로)·송암봉사상(예장총회 자선사업재단) 시상 ⑬ 10. 23. 연동사료실 재개관 및 르완다 난민구호 ⑭ 10. 23-31. 꽃꽂이전시회 ⑮ 10. 24-11. 16. 청소년주일학교 연합행사 ⑯ 10. 30. 연합성가대음악회 ⑰ 11. 16. 연동복지원 설립 ⑱ 1995. 4. 16. '연동교회100년사' 발간



기념 출판물



사경회



게일강좌





전교인운동회(가장행렬팀) - 5.22



여전도회 바자회 테이프 절단 - 10.21



유아부 기념잔치 - 10.23



청소년주일학교 역사사진전시회 - 10.24~11.6



'성령이여 임하소서' 꽃꽂이전시회 - 10.23~31



연합성가대의 음악회 - 10.30



기념예배를 마치고 - 10.23



# 연동역사관

## 교회창립 100주년 때 보강해 재개관 '사료실'에서 '연동역사관'으로 개명



### 옥외 전시물 설치 역사관 입지 넓혀

#### 게일 목사 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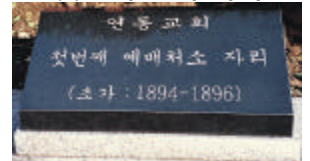
1988년 12월 게일 목사의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한가협회에서 세운 흉상.

#### 우간다인 흉상



1990년 10월 김정운 선교사의 우간다 콜루바병원에서 치유받은 한센병 환자를 조각해 보내온 기념 흉상.

#### 첫번째 교회 자리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자리잡았던 첫번째 예배처소 터전(지금 정문 위치에 쫓돌).



#### 큰 종(1)과 작은 종(12)



1954년 12월 다섯번째 교회당 종탑에 설치했던 큰 종(예수님)과 1978년 5월 여섯번째 교회당 종탑에 설치했던 작은 종 12개(상징적 의미 : 열두 제자).

1994년 교회창립 100주년을 기해 90주년 때 개관했던 연동사료실을 전체적으로 보수보완하고 진열장 6대를 새로 들여와 진열품을 정비 정돈해 재개관했다. 개관 테이프는 김형태 원로목사와 이성희 목사, 그리고 내빈 대표로 방지일 목사가 절단했다. 그리고 정문입구에 ① '첫번째 예배처소 자리' 쫓돌 ② 옥외전시물 1호인 '큰 종과 작은 종' ③ 2호인 '선교지 우간다인 부부 흉상'을 설치했다. 한편 내부적인 작업으로 2001년 10월에 1896~1955년도 당회록과 교인명부 및 교회일지 등 15권(전체 10질)과 2003년 12월에 1955~2003년도 당회록을 13권으로 나누어 영인본(전체 3질)을 각각 제작했다.